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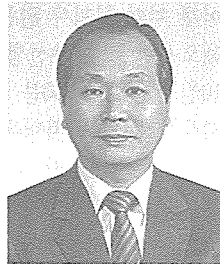
학술분야 소식



〈간친회 석상에서 Fukuhara 日本교정학회 會長과의 기념촬영〉

◎ 서울치대 김명국교수 대한해부학회 차기회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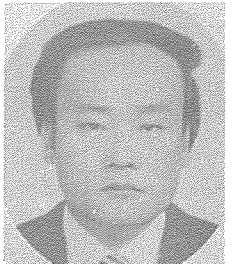
서울치대 김명국 교수는 지난 10월 11, 12일 용평 리조트·드래곤 벨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해부학회 제41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임되었다. 대한해부학회는 대한의학협회 산하 분과학회의 하나이고, 매년 4번(3, <金明國 前 學長> 6, 9, 12월)의 학회지를 발간하며, 한·일 해부학합동 학술대회와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1987.4~1991.4)한 바 있는 김명국교수는 그동안 대한구강해부학회 회장, 대한해부학회 부회장, 한국전자현미경학회 부회장, 한국전자현미경 학회회장,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장, 대한체질인류학회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학술위원장 및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이사를 역임한바 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로 있다.

◎ 서울대학교 본부 학생부처장에 韓世鉉 교수임명

서울치대 소아치과 韓世鉉교수가 서울대학교 학생부처장에 임명 발령(1991.10.11부)되었다.



서울대 치과대학으로서는 대학교 본부 보직을 맡기는 한세현 교수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世鉉 學生副處長〉

금번학생부처장으로 발령을 받은 한세현교수는 서울대 치대를 1971년도(제25회)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교육연구부 치과담당과, 대한소아치과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 제 1 회 아세아·태평양교정학술회議 盛了 —9월25~27일 일본 Osaka에서 개최—

제 1 회 아세아·태평양 교정학 회의가 지난 9월

25~27일 일본 Osak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일본 교정치과학회 제50회 기념을 겸해 열린 아·태교정치과학회의는 처음으로 개최됨에도 특별강연 2개연제, Symposium 4개연제, 學術口演 103연제, 學術展示 103연제, 症例展示 33연제가 발표됐으며 한국에서도 교정치학회소속의 많은회원이 참석하여 學術口演과 포스터발표 그리고 症例보고에 참여하였다. 더구나 孫秉和회장은 「Symposium IV, 脣顎口蓋裂以外の 先天異常에 起因하는 咬合異常」에 연자로 참여하는 등 한국교정치학분야의 연구활동을 과시하기도 했다.

주요연제는 다음과 같다.

<특 강>

1. 교정진단과 진단결정의 새로운 방법/Alexandre Petrov교수(불)
2. 치아맹출의 조절에 대하여/William R Proffit교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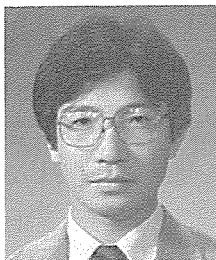
<Symposium>

1. 교정치과 치료후의 원격성적
2. 부정교합의 기능적 분석
3. 교정력에 의한 치아이동의 mechanism
4. 순악구개열이외의 선천성이상에 기인하는 교합이상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장에 梁洪瑞교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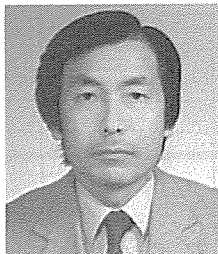
전남대학교는 치과대학학장에 치과대학 보철과 과장인 梁洪瑞교수를 임명발령(1991. 10. 8부)했다.

梁圭鏞학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그 후임으로 학장에 임명발령된 양홍서 교수는 1981년도(35회) 서울대 치대를 졸업 <신임 梁洪瑞 학장>업, 1986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학생과장, 치의학과장, 보철과 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동 대학 치주과장인 鄭賢珠교수의 夫君이기도 하다.



◎ 제 3 회 아세아 두개하악장애학회 개최 회장에 Kobayashi교수(日)/부회장에 金光男교수(서울대)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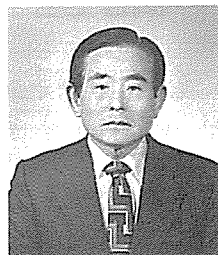
서울치대 金光男교수가 아세아 두개하악장애학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지난달 26~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3 회 아세아두개하악장애학회는 金光男교수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일본치대 보철과 고바야시교수 <金光男 教授>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학회에는 한국에서 이승우 서울치대학장, 김영근 연세치대교수등 17명이 참가했으며 고석훈씨(前 단국치대 교수), 경북치대 최재갑교수가 연자로 활약한 바 있다.

◎ 치협명예회원 崔曉峰氏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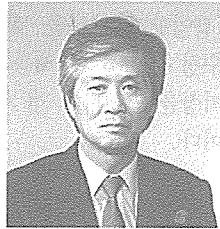
치협명예회원이며 대한치우회 명예회원, 그리고 1970년 이래 치협 협회사 편찬에 참여해오시던 최효봉선생이 지난 10월 2일 12시 30분 숙환으로 81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했다. 仁川태생인 최효봉선생은 1946년 「조선치계」편집인 <故 崔曉峰 氏>



으로 부터 치과계에 인연을 맺어오면서 1951년 경남·부산치과의사회 사무장, 1965년 부터 4년간 치협사무국장, 「한국치과공론」 및 「치계」 편집인등을 역임했다. 또한 1980년에 발간한 「대한치과의사협회 會史」 편찬위원으로서 會史發刊에 中心的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치과계의 산 證人으로서 평생을 齒科界와 呼吸을 함께하면서 치과의료문화에 기여한 공이 다대하다. 故 최효봉선생의 장남인 崔庭植원장은 현재 서울 구로동에서 효정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기도 하다.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李相喆교수)의 91년도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치대 6층강당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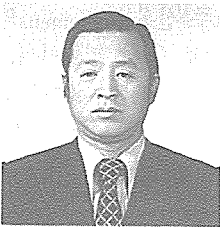


“악관절 질환의 외과적 처치와 합병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3개의 논제 <회장 이상철 교수>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제1논제에서는 金榮九교수(서울치대)의 「악관절 질환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효과와 치료한계」, 김경욱교수(단국치대)의 「외과적 처치의 적응증과 술식의 선택」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 3논제에서는 鄭聖昌교수(서울치대)를 비롯한 4명의 연자가 연제를 발표했으며 악관절 수술에 대한 증례 및 통계등에 관한 자유연제 8개가 발표됐다.

◎ 대한구강병리학회 창립33주년기념 학술대회 盛了

대한구강병리학회(회장·조기호)의 제33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지난 25~26일 양일간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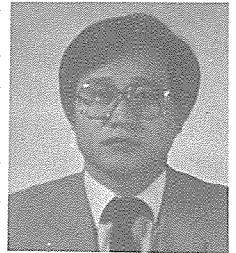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히로마사 니카이교수(히로시마치대)를 비롯한 4명의 연자가 특강을 했으며 병리진단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또한, 학회에서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회무의 활성화등을 위해 회원들의 사진과 주소가 실린 회원수첩을 발간하여 학술대회기간에 배포했다.

<조기호 회장>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임상예방치과 세미나 개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과장 신승철 교수)은 지난 10월 25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예방시술에 관한 제3차 임상예방치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개원의를 대상으로한 이번 <신승철 과장> 세미나에는 일본 동경치대의 가와구치 요코교수가 『일본치과위생사의 업무현황』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 서울대 치대 양재호박사 교수로 승진 발령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지난 10월 1일자로 보철과의 양재호박사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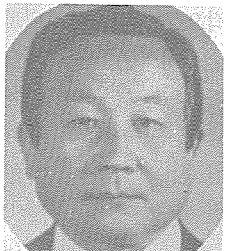


이번에 승진된 양재호교수는 1970년도 서울대 치대를 졸업(24회)하고 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보철학회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다.

<양재호 교수>

◎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악안면구강외과의 양동규 교수 신임학장취임

부산대 치대 악안면구강외과의 양동규교수가 10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병태 학장의 뒤를 이어 새롭게 학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양동규학장은 1967년 서울치대를 졸업(11회) 하였으며 악안면 구강외과의 과장 <신임 양동규 학장> 직을 맡고 있었다.

◎ 대한군진의학협회 1991년도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한군진의학협회는 대한의학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11일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산하단체이기도 한 군진치과의사회는 군진의학협회 치의학분회에 소속되어 각 분회별로 행한 학술발표순서에서 현 군진치과의사회의 회장으로 있는 김판식대령을 좌장으로 하여 연세치대 한동후교수의 “부분의치 설계시 고려사항”이라는 제하의 특강과 함께 학술발표를 행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연제와 연자는 다음과 같다.

1. 지각 과민의 처치 Iontophoresis의 활용 *.....대위 심상화
2. 치주병소 골흡수 측정시 정량분석형 계수공제영상 방사선 측정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대위 김형욱
3. 알콜 적용에 따른 백서 좌골신경의 조직 병리학적 변화대위 이원필
4. 전후방 두부 방사선 계측분석에 관한 연구대위 김영찬
5. 하악 제3대구치 발치후의 이감각장애에 대한 연구대위 이상휘
6. Tetracycline함유 slow release device가 진행된 치주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 및 암시야 현미경적 연구대위 김진홍
7. Glutaraldehyde 및 Foremocresol의 농도별 치수 조직반응에 대한 실험적 연구대위 김영재

◎ 한길치학연구회, 출판기념회

『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어떻게 해야하나』

치의학 전반의 학술연구와 임상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원치과의사들의 단체인 한길치학연구회에서는 『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감염방지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펴내는 한편, 이를 자축하는 출판기념회를 지난 10월 2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카멜리아룸에서 가진 바 있다.

이날 기념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대표하여 전훈식부회장과 최부병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박상남회장 그리고 대한치과교합학회

의 윤창근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책의 출간을 축하했다.

이번에 간행된 책은 한길치학연구회에서 3년전에 펴낸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와 그후에 펴냈던 「감염방지 무엇을 해야하나?」에서 미흡했던 점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발행한 것으로서 10,000부 이상을 인쇄하여 전 치과인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SIEMENS, (주)신흥과 대리점 계약체결

정밀의료기산업에서 선두를 달려온 독일, Siemens사가 지난 8월 22일자로 (주)신흥과 국내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관련사진) 이번 계약은 국내에서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자사 유틸트 체어를 생산중이기도한 신흥의 생산능력과 전국규모의 A/S망을 높이 평가해 체결된 것으로 사업규모도 현재의 완제품 수입단계에서 국내조립생산 및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통한 해외협력강화방침도 논의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의료기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계약식은 Siemens를 대신하여 당사의 현지 계열사인 SGSM(Siemens Gold Star Medical Systems Co.,Ltd.)과 (주)신흥간에 이루어졌으며, 독점 대리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주)신흥은 Siemens의 유닛 체어등을 완제품형식으로 수입, 판매하여, 이의 사후관리도 맡게 된다.

한편, 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주)신흥의 사후관리요원 2명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독일 Bensheim소재 Siemens의 현지교육을 마치고 귀국했다.

